東亞日報
月曜 夕刊
本紙朝夕合十面
發行所 東亞日報社
電話 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社說

工場法立案에 際하야
— 要綱은 그 實際的限界 —

一

調査에 依하면 十人以上 勞働者를 使役하는 工場은 一千一百九十九個所요 勞働者總數는 六萬五千三百七十四人이라 여기다가 鑛山二百十三個에 勞働者三萬九十三人을 加算하면 工場은 一千四百十二個所에 勞働者는 九萬五千四百六十七人의 多數에 達한다고 한다. 이가운데 九時間以內 勞働者를 使役하는 工場은 鑛山을 除한 總工場數 一千一百九十九工場中 겨우 六十七工場에 不過하고 그外에 적어도 十二時間 以上式 勞働者를 使役하는 것이며 ...

二

勞働條件에 對하야는 ...

三

그러나 最近 이問題는 또 다시 ...

工場法은 勞働者의 生活과 健康을 相對的으로 保障하는 것이 그目的인 以上 ...

英、蘇의 二大勢力
重大危機에 直面
中央亞細亞와 帕米爾高原을中心
赤蘇의 西進政策으로

中央亞細亞의 帕米爾高原을中心으로 英蘇二大勢力의 對立이 重大한 新事態의 危機에 直面하얏다 ...

民政의 對政府態度
漸次로 變調化
從來와 가튼 積極的援助는 不與
兩黨聯繫에는 好影響

【東京電話】 民政黨 首腦의 對政府態度는 漸次 變調化하고 있다 ...

八十四誕辰을 마지은 마사릭 大統領

政府의 三大政策
準備에 着手中
國策審議會도 設置?

政策共同調査의
準備工作에 着手
政局動向과 黨內情勢도 考慮
政友會總務會協議

林陸相辭表提出
今日首相을 訪問하고
注目되는 今後의 政局

【電通至急電報】 林陸相은 十一日午後三時四十分 齋藤首相을 訪問하고 辭意를 表明하얏다는데 그理由는 林陸相은 自己의 親弟인 白上佑吉氏가 東京疑獄事件으로 ... 責任을 感하고 辭意를 決한 것이라 하며 齋藤首相에 對하야 極力慰留하고 있다 하며 ...

後任陸相에
眞崎大將有力

首相慰留하여도
辭意치 안흘모양
辭表提出後林陸相談

司法警察設置案
內務省反對强硬
◇警察省設置論有力

馬來半島廿個所에
英空軍根據地急設
日本南洋委統領에 直接威脅
不日完成을 圖謀中

駐蘇顏惠慶大使
外交內政을 暢談
"中蘇互相提携를 主張"
上海에서 申特派員發

夕刊後市況

第一號出
早稻田大學講義
內容見本進呈

講義錄은 學校의 敎科書와 敎室에서의 先生의 講義와를 兼한것이오、그러고도 時間에 制限이 없이 배흘수 잇슴니다。獨學者의 興味는 여기잇슴니다 뒤저서는 損、지금이 入學絶好機!

中學講義
新日本을 질미지고일어설 責任잇는 靑年은 누구나 中學卒業程度의 實力을 養成해야 됨니다。中學校에 못가는사람은 獨學으로라도 基礎를 쌓을것임니다 本講義는 新中學校令에 依한 全學科를 完備하고 全部大改善을 加하엿슴니다 ... 早稻田大學特別入學、學費給與、懸學懸賞、八大附錄等의 大特典이 잇슴니다

高等女學講義
時代가 進步함을따라 女子에게도 學問은 더욱 必要해젓슴니다。이 講義는 高等女學校의 全課程을 알기쉽도록 親切히 講義하엿으므로、每日조곰씩 工夫하면、一年半에 일헤가면서 女學校卒業生과 同等學力을 엇고、專檢과 敎員檢定에도 容易히 合格할수가 잇슴니다。本年은 特히 여러가지 特典과 附錄잇슴니다

商業講義
實業方面은 암만해도 實力의 競爭임니다。그것을 이겨가려면 그에 必要한 甲種商業卒業程度의 學力이 必要합니다。本講義로 工夫하면 容易하게 그目的을 達할수잇고、就職에 便利하며、商店·會社·銀行方面에서 어떠하게던지 活躍할수잇슴니다。獨立營業하는 때에도 不可缺의 最良指導書임니다。此際에 入學하면、大附錄、大特典이 잇슴니다。

文學講義 / 政治經濟講義 / 法律講義 / 建築講義 / 電氣工學講義 / 電氣工學講義

東京 早稻田 早稻田大學出版部

ClibPDF - www.fastio.com

六道河子에 反滿軍襲擊
朝鮮人十二名拉去
山本組工事場의 품팔이人夫
領警이 目下追擊中

【전룡하르빈十一일발】 양고하의 동남으로 약七키로되는 육도하자(六道河子)의 산본조사무소(山本組事務所)에 十일밤 약五十명의 반만군이 습격하야 대지요시(大地요시)를 살해하고 일본인五명과 조선인十二명을 인질로 납치(拉致)하여갓다. 목하영사관경찰에서 추격하고 잇는중이다.

強盜가 刧奪하려다 母女殺傷코 衝火
돈내라다 불측한 마음먹고兇行
順川署에잡힌稀世兇漢

【순천지국전화】 평남순천군순천면비산리(順川郡順川面山里) 미상동가 침입하야 자기시안 마취인숙하고 잇던바 강도는 차십시 안해 이씨(李氏)(二)를 위협하고 금품을 내라고 협박하다가 돈이 없다고하매 수욕을 채우려 덤비려다가 부상을 이부시못하고 이에 분개하야 방치로 이씨와 딸 순자(順子)(八)를 때려 부상을 입히고 도망하면서 집에불을 질럿다. 방시 진화되고 범인은 이 날체포하엿다.

李王殿下 昨日東京發御

이왕 동비 양전하께옵시는 十一일 오후一시 동경역(東京驛)을 출발열차로 떠나옵시게 되셧다. 양 전하께옵시는 十三일오후五시 경성역에 도착하시와 十五일에 경성에서 개최되는 전조선 재향군인 대회(在鄕軍人大會)를 어래람하옵시후 十六일 함흥(咸興) 본궁(本宮)에 듭시어 친제를 엄행하옵시게 되옵시라 하옵시다.

佛誕二千五百年 벌서花祭를準備

오는 十四일오후三시 조선「호텔」에서 불교기관 봉찬회(奉讚會)의 설립발기회를 개최하리라 한다. 이는 금년이 불탄二천五백년에 상당하야 이로 특히 봉찬회를 조직하고 화제봉찬회(花祭奉讚會)와 합동하야 더욱 의의잇게 하리라는 것이라 한다.

青年이 飮毒 큰설이없어서

【이천】 안해와 의가없어 음독하야 그와같이 자살하려하엿다는데 十一일조 부내 용리(龍里)一백八十八번지구세의원(救世醫院)에입원치료중이데생명이위독하다한다.

本町의 金密輸 三萬圓巨額
절도공갈등여죄도잇을모양
連累關係로事件擴大

기보=시내 본정서에서는 경성을 중심으로 대규모적 밀수를 하던 금괴 대밀수단 九명을 평양(平壤) 신의주(新義州) 등지에서 체포하야 목하 동서 사법계 형사실에서 엄중히 취조중이라함은 이미 보도하엿거니와 아직 연루자도 전부 체포하지못하고 또 범죄도 아직 갈니지않엇으므로 자세히 알수없으나 지금까지의 취조에서 나타난 금밀수액만이 약三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로써 미루어볼때 장사취조의 진전에따라 전밀수액이 폭로되며 또 절취 공갈등과 같은 수단으로 빼앗은 금괴액이 판명 될때에는 상당히 많은수액에 달할것같다고 한다.

爲先十五名만 今明間送局
國境警官金塊密輸出事件
民間側의密輸는分離

금번의 금괴밀수사건은 경찰관의 금괴밀수출사건과 민간측만의 금괴밀수출사건으로 二분하야 전자(이중에는 민간측四명——金德浩、崔炳殷、鄭瑞麟外一名——)는 평북경찰부에서 직접취조하야 우선十一、二일경에 경찰관十一명(미체포一명포함)과 민간측四명만을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할 모양이며 후자는 의주(義州)경찰서에서 목하취조중에 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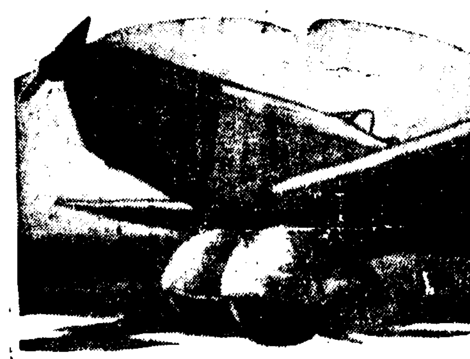
暴風警報

四月十一日午後二時 仁川觀測所發表

바람은 强할것이다. 南風은 西으로 변하고 海上에 暴風이 發生하겟다. 京畿道、忠南、全南北沿岸을 警戒하라. 低氣壓의 中心은 滿洲北部에 잇어서 七五四미리를 보이며 東으로 進하고잇다.

四月十一日午後二時 仁川觀測所發表

바람은 强할것이다. 北西風이 强할것이다. 平南北、黃海道沿岸을 警戒하라. 低氣壓의 中心은 滿洲北部에 잇어 七五四미리를 보이며 東으로 進하고잇다.



獨逸에怪飛機
바퀴代身고무球

비행기가착륙(着陸)할때에 반동(反動)을 만이 기동 機體에 고장을 이르키는것을 어떠게하면 없애가하는것은 방금 비행기계에 중요한문제인데 최근독일인(獨逸人)가 「로비스·루르스타인」씨의 손으로 보여하야 사진과같은 기괴한기를 만들어냇다고한다. 즉 바퀴(輪)대신에 두개의 「고무공」을 달앗다. 그러하야 아무리 급하게 착륙을하더라도 기체는 하자도아니하며 이고무공속에는 공기(空氣)가들어 잇서 착륙할때에는 바람이 적당한 저항(抵抗)을 강하게 받게되는 토 고무공 상반신(上半身)에는 유선형(流線形)부근을 씨여서 그저항을 막게하다. 그러고 또시수는 「淸水」 순대에는 고무공은 「글러이드」상비행기의몸에다는배설한것」의 내용하고잇으나 이고비행기는 수륙양용을 맛게되어잇는것이라고한다. 의고무공은 회전장치(回轉裝置)를 어떠게하엿는지 아직 알수가없다고한다.

日本體協의理事會가
大會不參加發表

【聯合東京電話】 極東大會 不參加問題에對하야 在上海 山本博士는 十日午前十時電話로 請示하야 同電報는 午前十二時半 體育協會에 到着、同協會에서는 右電報에對하야 高島、田畑、竹腰、澤田、李、辰野各理事는 右內容에關하야 種種協議한結果 다음과같이發表하엿다.

晋國側役員은이번의 極東大會開催되는것을 歡迎하며 日本도 競技參加問題에對하야는 傍觀의態度를 取하고 이事態에 對하야는 何等의誠意를보일수가없다. 日本으로서도 極東大會에 義務를 感할必要가없다. 脫退는 안하지마는 參加하지않는편이좋다고생각한다.

朝鮮健兒들의 鬪技에滿場熱狂
極東올림픽拳鬪詳報
◇東京에서申特派員發電

【東京特派員申浩均九日發特電】 極東올림픽 拳鬪準決勝戰은 八日午後六時三十分 東京 日比谷市政講堂의 링에서 擧行되엇다.

六時四十分 兩國의拍手裡에 日本의 關東、關西、中部及 朝鮮의 選手가 入場式을 마치고 그뒤를 이어서 七時부터 拳鬪의白熱戰은 展開되엇다.

場內는 立錐의餘地가없이 플레이때부터 非常히 緊張하엿다. 이날朝鮮選手는 웰터級의 姜泰珍君을除하고는 四選手모두가 보기좋게 이겻는데 그中에도特히 金昌煒君의T·K·O로 勝한것 이라든지 李奎煥君의 判定으로 이긴것 같은것은 斷然킹장나게 이긴勝利이엇다.

昨年에 처음으로 東京에遠征한 朝拳選手들은 그當時 보다地理에 익숙하여보엿다.

競技의 經過는 플라이에 中野(關東)가 關西의 濱口를 判定으로 이기고 朝鮮의金裕昌君이 中部의 井本을 判定으로이겻다.

밴탐級에는 朝鮮의 金昌煒君은 關東의 澤田을 테크니칼노크아우트로 이기고、關西의 安藤은中部의 望月을 判定으로이기엇다.

페더級에는 朝鮮의 朴龍辰君이 關東의 鶴岡을 延長戰에들어가判定으로 이기고、中部의北은 關西의村瀨을 判定으로 이겻다.

라이트級에는 朝鮮의 李奎煥君이 關西의 飯野를 判定으로 이겻고 關東의 永松이 中部의 櫻井을「리케오」로 이겻으며 웰터級에는 朝鮮의 姜泰珍君이 關東의 齋藤에게 判定으로 敗하엿으며 關西의 雨條가 中部의 櫻井을 一回에 나크아웃으로 이겻다.

朝鮮의 四選手는 各各逞勇하야 플라이의 金裕昌君은 奇妙하게 敵을 놀려서 始終優勢하엿으며 밴탐의 金昌煒君은 獨特의 强한 펀치로 敵에게 肉彈을 加하야 澤田은 七轉八倒하며 일어나다가는 쓰러지고 또일어나다가를 몇번하다가 二回一分四十六秒에 테크니칼노크아웃으로 金君은勝하엿다. 이것은 페더級의 朴龍辰君도 萬難萬關하야 沈着하게 싸워延長戰에 들어갓는데 延長에들기가무섭게 健鬪를하야 이욕고 勝利를 얻엇다.

라이트級의 李奎煥君은 가장 奇麗하엿게시로 싸워 파연 模範戰인 觀이잇엇다.

朝鮮蹴球團 天津向發
北中國遠征으로

朝鮮蹴球團에서는 朝鮮의 一流를 망라하야 陣容을 굳게만들어 가지고 四月八日 午後六時半 仁川을 出帆하는 鋼江丸으로 海路로 中國天津에 遠征의길에 올랏는데 朝鮮의蹴球界가 上海로 東京等各地로 進出을 본지는 이미 오래이엇으나 北中國으로 國際的進出을 보게되기는 이번이最初의 일이라 한층더 同軍의 이번遠征이 期待된다.

一行의 멤버는 다음과같으며 天津의게임을 끝내고는 형편에딸아서는 北京에도 갈것이라고 한다.

監督白命坤▲마네저鄭寅昌▲主將金元謙▲選手金容植(京城)崔成孫(京城)林日順(構浦)裴宗鎬(構浦)河永得(鎭南)安琮翰(平壤)李惠進(京城)鄭宗鎬(大邱)朴基燦(鎭南浦)金永貴(平壤)張炳鈺(江西)秦金淑(群山)金成鍾(大田)

運動界動靜

▲趙寅相君(早大競技部)十日午後九時四十分京城發東京에

警官金塊密輸事件
大阪에까지飛火
二十六萬圓어치를 密輸出?
本町署依賴로金商을取調

【경무대판十一일발】 대판시장 경찰서(大阪船場警察署)에서는 경성 본정 경찰서(京城本町警察署)의 의뢰에 의하야 十一일 대판 동구평야정(大阪東區平野町) 二정목에 잇는 귀금속시계상회……

全北共黨關係者
四十一名을送局
訓導中心의 赤色秘密結社
任實、全州各署에서

【전주전화】 누보=작년七월十五일에 전북의 경찰서(全北警察署)에서 다시를 잡아가지고 전북일대에 착수하야 전북도경찰부의 지휘를 받아가며 전라북도는 물론 전라남도(全南)경상남도(慶南)충청북도(忠北)등 무릇네도에 걸쳐 의 손이 뻗치어 전후 一백四十여명을 검속 취조하던 전북공산당(全北共產黨)사건은 그대용이 현직 공립보통학교훈도를 중심으로 한 피의자의 직사비밀사인만큼 큰 충동을 주고잇던바 그후에 대부분은 석방하고 남어지 조광옥(趙光沃)등 四十一명의 관계서류는 방시 전주지방법원검사국(全州地方法院檢事局)에 송치하엿다한은 일찍보도하바와 갈거니와 十一일 오전十一시쯤 전주하야 임실경찰서에 유치중이던 二十一명은 전주경찰서(全州署) 남원 경찰서(南原署) 거창 경찰서(居昌署) 가처에 유치되어잇던 전부 四十一명을 전주지방법원 검사국에 넘기엇다한다.

送局者氏名

▲全州第一公普訓導趙光沃(二三) ▲長水公普訓導李志鉉(二七) ▲長水長溪公普訓導梁會天(二七) ▲南原公普訓導金活坤(二六) ▲南原巳梅公普訓導鄭云喜(二〇) ▲群山公普訓導梁載龍(二五) ▲全州昌明町金明俊(二三) ▲扶西公普訓導柳寅格(二三) ▲山內公普訓導朴順南(二五) ▲淳昌公普訓導朴順根(二五) ▲興德公普訓導李康國(二六) ▲神田農林五年生趙永浩(二三) ▲鎭水色內近藤川(二〇) 外二十八名

觀光展覽會

관광사상을 보급시키고저 경성관광협회(京城觀光協會)에서는 오는四월二十一일부터 동二十五일까지 삼월(三越)옥상에서 관광취미의 전람회(展覽會)를 개최하게되엇다한다.

百萬圓資金으로活動턴
國際拳銃大密輸團
青島、天津에拳銃파實彈多數輸出
神戶에서 卄名檢擧

【연합신호전화】 오후四시에해금=병고현(兵庫縣) 경찰부 형사과(刑事課)와 보안과(保安課)에서는 금년 一월二十九일이래남신호항(南神戶港)을 중심으로 암약하는 국제적 권총밀수단에 대하야 검거의손을 벌리던 동시에일방 게재를 금지시키고 동경(東京) 대판(大阪) 신호(神戶) 경찰부의 응원을 얻어 가지고 범사의 활동을 계속하는 결과 지난 二월에 수괴로 지목되는 신호시 웅합구 야기통(神戶市葺合區野崎通)一정목 二三호의 재산가 소전동(小田東)○(二)을 경시청원이 체포하엿는바 드디어 이밀수단의 전모가 폭로되엇다고 한다. 그배후에는 경찰관이잇어 우선(郵船) 상선(商船) 원전(原田)등 제기선회사의 우수선을비롯하야 자동차를 이용하야 신호 대판(大阪) 천진(天津) 청도(靑島)등지에서 파보한 가두연락으로 법망을 피하면서 범죄를 행한 사실이판명되엇다고 한다.

검거에 잇어서 법조인 보안과 지방경찰기수(地方警察技手) 교본○래(橋本總太)씨가 책임을 지고 「피스톨」자살을 한등 비창한사건까지 잇엇섯는데 신호검사국(神戶檢事局)에서는 十일에 검

函館大火災罹災者救濟 義捐金募集

◇義捐은金錢에限하되 期間은三月廿五日부터向後一個月間

東亞日報社、朝鮮中央日報社、朝鮮日報社
朝鮮日日新聞社、朝鮮新聞社、每日申報社
京城日報社、朝鮮社會事業協會

青年이轢死

【강동】 평남강동군승호리(勝湖里) 새벽다회사 채석장(採石場)에서 지난九일 오전十一시경에 작업하든 청년一명이 마재하시화시운반「추럭」다하고 가다가 앞에서 일하든 청년이 그긋치어 그바퀴로에 밧이 들어가 무사히도치어 다리가 여러곳이 부어저 즉시 방시 회사병원으로 운반하엿으나 치료할수가없어 조시 오후二시발 사로 평양 도립의원(平壤道立醫院)으로 운반하야 응급수당을 하엿으나 오후……

金鑛미끼의詐欺團
取調마치고七名送局
남어지 大部分은 釋放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서 취조중인 금광을 미끼로한 대거 취소중인 사기단 사건은 이미 검거된 인원을 비롯하여 취소중이던바 취조도 일단락을 지엇으므로 명十二일에는 일건서류와함께 七명만을 송국하리라한다. 그리고 그나머지 사람은 대부분 석방하고 그리고 나머지 四、五인은 취조가 끝나는 대로 송국하게될터이라 한다.

東京市疑獄判決

【연합동경전화】 정화 시회(淨化市會)의 이름을 배반하고 재작년 동경와사회사(東京瓦斯會社) 一중역의 횡령사건이 표면화하야사회의 증자(增資)와 계약개정문제에 비화하야 시회의장(市會議長) 선거 시영묘지(市營墓地) 시장(市長)선거에 주래는 보이고 작년시회 대의(代議)사건에도 파계한대의사 대신전군치(大神田軍治)씨 三十여명에파한 독지사건의 대공판은 十一일오전十시부터 동경공소원(東京控訴院)형사 제二호법정에서 재판장은 약 二시간에 걸처 판결이유서를 낭독한후 최고一년二개월 최저二개월 징역파 三명에게무죄판결의 언도가 잇엇다고한다.

無錢取食코 警察에自首
음식점주인대리고 西大門署에
飢寒에 몰린 前科者

지난三일 오후五시경 서대문경찰서에는 웃는사람 도망치는사람 이끌고와서 불로로 왓다갓다하다가 결국 경찰에 넘기한바의 팔극이엇다.

웃긴사람은 원적이 철원군철원면중리(鐵原郡鐵原面中里)라하고 일정한주소가없는 왕세진(王世珍)(二)이라는사내로 대정十년八월에 철원지청에서 사기죄로二나의징역을 받은것을 비롯하야 공갈 다른 전과를가진 전과자로서 三정목 김준국(金俊國)의식점에 들어가 一원十전어치 술파음식을 먹고는 나는 서대문 경찰서에 二원五十전받을것이 잇으니 가치가면 주겟다고하고 전기배달이 있다는 사람을데리고 경찰서에 와서 문간에세워놓고 아으로들어가서 뒷문으로 도망치는성싶어 범동이은 추적하야 붙잡아 경찰에 맡겻는데 왕서방의진술은 다음과같다.

개성에 무이와서죽는것이나 찾어가야 전파자라고 내여쫓고 또 몇해전에 공터리에서 공사장에일하다가 떨어저서 허리를 상하야 병들었다나 치료하후 생활은건것으나 노동할수없어 시장하야 계개되어서 무전취식을하얏다 경찰서에는 자수하러왓엇다라고 말하고잇다는데 十二일날 송국하리라한다.

扶安에火災

【부안】 지난九일새벽四시경 부안군 부령면서외리(扶安郡扶寧面西外里) 김약범(金若範)집에서 발화하야 무시가동안 초가집을 이부엇는데 연소는없고 동가만 전소되엇다. 손해는 六十여원이라하며 발화의원인은 연돌에잇다한다.

그날그날

陰四月十二日(木曜日) 癸丑 陰二月廿九日 日出前六、〇四 日入後七、〇四 月出前四、四九 月入後五、二〇

桃花劇場 (電話光化門三四〇番)

四月十一日밤부터大公開 ◇劇藝 朝鮮研劇會第一回第二週 ◇朴英鎬作 中國野史 開化前夜 全三幕 ◇馬春鵑作 哀歌劇 봄은하나대 全一幕 次週 三日、十四日二日間 連鎖劇 洪吉童傳 朴英鎬作 洋劇 與歌劇 사랑의合理化 一幕 豫告 十五日부터 大悲劇 「스산레」 不日內大封切 主幹 金昌俊

優美館 (電話光三九七番)

四月十二日부터特別大封切! ◇압니압폭스 社特作全發聲映畫 喜거본武勇傳 全九卷 西部無敵王 全七卷

泰安醫院 內科、外科、產婦人科、小兒科、皮膚科 院長 李奎泰

釜山府大新町 朴興甲

羅津支局 顧問 申敬天

祝東亞日報創刊十四週記念

醬油素製造都賣 山陽商會 釜山府幸町二丁目 振替口座釜山四二六五番

羅津 共永商店 主 金奉猷

金山本町 申永提

玉文秀

羅津海岸通 金落雲

劉贊文

孫得福

醬油醸造家와販賣業者의게!!! ◎醬油界의革命! 醬油調味料아미(アミ)酸의出現!!

地方部長(圖長)招聘 熱心誠實의士、年齡三十歲前後、身元保證確實 日華生命保險會社 南大門前

淋病 ケンゴール 淋菌와性病豫防에絕對權威 日東製藥合名會社

育兒 ラクトーゲン 母乳와比較 無糖煉乳 第一號 乳兒營養表

成分量	ラクトーゲン七倍乳	母乳	牛乳	煉乳三倍稀釋	乾燥乳七倍稀釋
脂肪	3.13	3.10	3.60	3.14	0.07
蛋白質	2.23	2.00	3.40	2.77	4.54
乳糖	6.79	6.60	4.75	4.17	6.18
灰分	[illegible]	0.20	0.75	0.68	[illegible]
蔗糖	ナシ	ナシ	ナシ	16.70	ナシ
水分	87.19	88.10	87.30	78.74	87.80
カロリー	66.80	64.42	66.00	101.04	44.70

學藝

甲申政變과 그 影響
獨立黨의 沒落과 그 影響
續朝鮮最近世史㊅ (卅七)　李瑄根

竹添公使는 「貴大使의 말슴으로는 너무 지내친다. 이자리에서 決定한것을 누가 무엇이라고 말할것이랴. 그러므로는 以前에도 여러차례 條約의 締結이 잇엇지만 淸國으로부터 干涉함은 업섯다. 本官이 거북하게 여겨 相議한다면모르지만 本官으로부터 아즉 아모런이야기도 하기前에 變亂을 이르킨 몸이 어 理解하기어렵다하야 淸國의 態度에 抑制할 必要가잇슴을 高調하엿다.

그러나 井上全權은 좀더 追窮의 態度를 取하야 彼此間 關係가 거북하도지 金弘集으로 부터는 오늘 그(吳氏)가 오지안앗는것

라면 無事히 進行될것을 交然히 와가지고 時間만 虛費하게 되엇다. 그러나 本大臣과는 關係업는것이니 諒解하라고까지하엿다. 이에 井上全權은 오히려 强硬한 態度를 늦추지 안코 어 兩者사이에 다음과같은 辯論이 展開되엇다.

井上曰「貴官에는 關係업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나기까지 잇다. 따라서 談判의 局面을 轉換하야 淸國의 態度 關國이 아니냐 하는點부터 밝히지않을수업는것이다」

金弘集曰「貴國도 상관식하는바 이지만 國內萬般의事는 그어느 것이던지 他國의干涉이 업는것

이오 우리나라의 自由다. 이 자리에서 決定한이을 乃終에他國의干涉으로 取消를請하는그 따위일이잇다면 그때에 어떠한 要求가잇슬지 우리는 알게 만들 다」그러나 萬萬 그럴理는 없다」

井上曰 「國家와國家가 權利를다투는일은 決코 容易한이아니다. 이러한 形勢라면 드디어 國王께까지 섭섭한마음이 생기게 된다. 비록 萬若 一時를 壓制할수있다손치라도 談判할수없는것이 안 이러면 關係는 아니라고 하지만 關國이 아니라면 關國의 關係를 무엇이라 말하랴」

金弘集曰「本大臣이 大君主로부터 全權의委任을받은以上 本大臣이 이번談判을 決定한다면 말리關係될일이잇다고 생각하다」(下略)

井上曰「本使는 事實不愉快한三箇條를接하지아니하엿다. 結末을 지어야만될것이다 어떠게 하는 지 이에對하야 淸國에 抗議치 않고 또 裏面에서 淸官과 相議하지 않겟다는것을 어디까지든지 保證해주어야만 다시 談判을 開始하겟다」

金弘集曰「이일에對하야는 먼저도 말슴드렷지만 外人과는 不同이오 또干涉도 한일도 없다. 또 수까지 各國과 條約을 締結한 때에도 前例가없거늘 昨獨 이 번에만 그러한理가 잇으랴」

井上曰「그러면 果然 淸官과 相議하는 等事는 없는것이냐」

金弘集曰「萬若 이일에 대하야 그러한 關聯될바가 잇다면 本大臣으로서 오늘의 談判을 決定하지않고 또 이以上 相議하러 本大臣은사람 오늘 이자리에서 決定하기로 約束하는바다 이로써 너무한 外人과의 關係가없다」

井上曰「오늘 안으로 談判을끝내는것은 諒解할수잇지않으냐」

金弘集曰「오늘 끝낼것을 決定하야 淸官의 面談을 明日에 하자 決코 무관하지안은가」

井上曰「그러면 愉快히 생각해 주기바란다 오늘 이자리에서 本使가 調印을 一分이라도 빨리 하기를바란다」

金弘集曰「雖然一談判이 眼前에 行되지 못한다면 國에는 不 나보시는 元來 不得已 하야 取하는 態度니 모든것은 貴國에 一任하는바다」

金弘集曰「緊國의 말슴 그처럼생각해 주신 感謝하는 바다. 本大臣도 談判을 速히 決定하고 싶다. 條款에 對하야 詳細히論 하자면 長時間을 要할터이니이 를 略하고 要點만 指摘해주기 바란다. 貴使도 諒解할수 잇는點은 速速聽斷해주기바란다」

井上曰「可能한일이라면 諒解안할理없다」

이같이하야 與大敵이 맞어내間題는 미묘소 一段落을짓고 먼저하는 討議를 繼續하게되엇으니 與大敵이 日本側에 좋지 않게 一層困難케하는 同時 交涉을 急速度로 促進시키는效果를 내엇다 以上 아모것도 아니엇다

審美的活動의 價値規定
―藝術의 恒久性에 關한 一分析―
(一)　朴英熙

一

藝術的活動에 잇서서 理念과形象이 不可分한 關係를가진 文學的作品이나 或은 色이나 形象만으로 그 機能을 遂行하는 音樂이나 美術이 다 한가지로 人間的社會的 生活的社會生活에서 그起源을 찾어내고 또한 效果를 社會的生活에 積極的 肉上의 一部로서 研究되는 藝術社會學은 實로 巨大한 發展을 하여서 왓다.

그리 하야 藝術社會學은 우리에게 藝術의 起源과 藝術의 結果를 社會的 人間의 生活에서 說明하고 例證하고 探究하여 주엇다. 이것은 「호세 쉬데인」이나 「루나찰스키」나 「프리체」나 「루나찰스키」나 「쁘레하노프」나 或은 그 外에 社會的 進步的인 藝術研究家, 文學者들이 한가지로 成就한 古今의 作品을 藝術社會學의 觀點으로 解明하기에 多忙 하엿다.

그러므로 現代의 藝術社會學은 長足의 進步를 하여잇다. 그러나 完成의 경은 아직도 남어잇음을 學者들은 말하고잇다. 그까닭은 藝術問題는 다른科學보다는 外見上 簡單한듯하면서 그 實 複雜한 데문이다. 藝術은 主로 사람의 精神的 努力이며 情緒的 活動의 까닭이다. 그러나 또한 藝術은 그 社會的 物質的―(素材)― 素材를 具有하고잇다. 그런故로 藝術作品을 研究하는것은 그 理念을 理解하고 그 形式을 評價하는 것을 意味한다. 世評家는 內容에 對해서나 形式에 對해서나 判斷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는 美學者며 批評家가 되지 않으면 아니된다」―(게·쁘레하노프著 「체르누이시에 후스키」의 美學理論」)

사람 의意識이 社會生活에 따라서 形成되고 規定되는것을 研究하는것은 比較的 容易한 事業이다. 그러나 사람의 精神現象을 研究하는것은 그다지 容易한 事業이 아니다. 이 精神現象이라할지라도 原因이 없는것은 아니나, 이原因은 廣汎한 精神世界에 散在하며 分化되며 複雜되어서 그 結果를 가지고 그原因을 探究하는것은 限이 없는 事業이다. 이것은 藝術研究에서 當面한 材料의 性質한 하나인것이다 藝術이 精神活動에 잇서서 理念과形象의 一致한 作品에 對하야 規定하기는 比較的容易하다 藝術의 美的價値를 規定하기는 또한 困難한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다시 말하면 意識과 理念이 作品가운데 充分히 含有되어 잇음을 認識하고 그 意識이 어떠한 계급의 産物, 어느 時代의 反影이라는것을 알어내는것 만으로는 充分치 못하다. 그것은 「쁘레하노프」의 所論과 같이 形式을 評論하는것을 잇어버려서는 아니된다. 卽 이 形式의 研究는 美的研究領域에 屬한다.

일즉 이 藝術研究家 「구요」는 藝術의 社會學的研究와 藝術의 共感性을 研究한 重要한 著作을 남기엇는데 사람이다. 그는 그의 名著 「社會學上으로본 藝術」(P·八一)에서 말하엿다 「美는 決코 絶對的으로 單純한것이 아니며 單純化된 複雜한 것이다. 多樣한 것 이 單純하야 잇는 것이 아니다 여러가지의 觀念과 映像을 떠어놓은 어떠한 光輝잇는 表現을 하는데에 있는 것이다」라고 ―.

그러면 나는 美의 複雜性과 따라서 藝術的作品의 評價에 關한 問題의 若干을 살펴보려한다. 藝術的作品의 評價에 關하야 맑스주의 K·마스의 著作인 經濟學批判序說 第四의 全文中에 잇으니 이것이 비록 草稿의 性質의 것이나 問題의 核心을 發見할수잇는것이다. 이것은 왼수이 「맑스主義로부터 藝術論에서 引用하고 力說한다 美的의 理解하는 것의 解明하는 藝術에 의 批判을 作品의 그 內容을 社會意識에 比較하야 規定하기는 比較的 容易하나 藝術의 美的價値를 規定하기 困難한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藝術이 時色이 그의 見解로서 본다면 美的享樂, 卽 藝術形式이 가 운데 잇는것을 明白히 말하엿다 그는 藝術은 社會人의 모든 制作과 同樣으로 發達하는 어느 社會的形式에 依하야 그 人스로 制約된다. 이것은 「맑스」의 생각으로 하면 代와 社會를 反映하엿스면서도 이 美的形態가 缺乏되엇다 하면 이것은 時代에서 時代에 世紀에서 世紀에 이르도록 그 生命이 없는 것이다. 勿論이며 다 一年도 그 生命이 없을것이다. 그러면 問題의 「經濟學批判의 序說第四章全文을읽어보자.

密接 한 關係를 가지고 또한 思實히 그 時代와 社會를 反映하엿다 하드라도 이 美的形態가 缺乏된다하면 이것은

讀者 理解에 便코자하야 이 부분에 대하여 簡略히 引用하겟다. 一읽은뒤

……

이것은 「藝術이 價値라는 것에서 그 다음 藝術의 永遠性의 明白히 强調하엿다. (鄭·金星譯)」

이것은 藝術의 價値評價에 잇서서 古典的 藝術研究家와 評論家가 美의 價値의 認定이다. 그런 故로 一定한 藝術的作品은 一定한 社會的 生活과 不可避의 關係에 잇스면서 그 自體가 永久的 效果論이 成立된다 卽 藝術의 恒久的 效果를 나타내는 不可解의 藝術의 美的價値는 此限에不在하다는 意味다 이것에서 藝術의 美的價値는 이 作品이 그作品을 制作한 時代에

朝鮮文學
「문학·아카데미」 編輯 「文學百科全書」에서
【三】　윤·닌　萩白譯

眞實의 朝鮮文學이 歷史的 舞臺에 登場하야 小說, 詩의 새로운文學的 潮流의 出現을 契機로하야 十九世紀에서 二十世紀初頭에 이르러 시작되엇다고 보지않으면 안될것이다. 獨自의 朝鮮文學의 創造者에잇어서 最初의 것은 作家李人稙, 崔南善, 趙一齊, 李相協, 等과 古典的歐羅巴文學作品의 翻案의 翻譯에 依하야 日本의 文學作品의 飜譯도 아울러 上記의 文學作品과 區別되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朝鮮의 作家自身의 獨自의 作品이 나타난 것이다. 李光洙, 引

소설, 신소설, 新生步, 새로운文學的潮流의 定式化의 事業에 잇서서의 李光洙의 解放的役割을 보아 잘 必要가 잇다. 最初의 時期에잇어서의 作品 「金가뽐」, 「少年의 悲哀」, 「無情」, 「開拓者」 에서 보아 그는 個人의 完全한 解放을 宣言하엿다. 封建的道德에 對한 鬪爭의 기빨을 높이 들엇엇다 이것은 傳統에 對하야 싸우는 最初의 戰士로서 戀愛의 自由와 啓蒙

者이엇다 이 事業에 잇서서 그는 當時의 朝鮮의 偉大한 作家의 한 사람이엇다. 李光洙는 一九二〇年以降, 이 두사람은 指導的作家로서 民族解放運動에 轉入하야 軌道우에 올라 이런 權威와 喪失하여 改良主義의 作家로 이것은 初期의 그들의 先驅者의 主觀을 取扱하고 잇다. 一九一九年 以後의 時期에 잇서서 李光洙는 自己의 作品에 「先驅者」, 「再生」, 「麥秋」, 「흙」, 「祖國」, 「흘나간소의 (其他) 에서 더욱더욱 人道主義에 接近하야 가면서 小說外에 自己의 詩와 論文으로 著名한 李光洙는 그 朝鮮의 모든 作家中에서 가장 흥미잇는 作家다. 李光洙와 아울러 金東仁, 廉想涉, 田榮澤, 玄鎭健, 羅稻香, 朱耀翰, 金素月, 卞樹州, 梁柱東, 金岸曙等은 現代朝鮮문단의 代表자들이다. 詩人으로서는 朱耀翰(「아름다운 새벽」), 「불노리」, 梁柱東(「論介」, 「三年間」), 「朝鮮의 맥박」, 金岸曙(「해파리의노래」, 「오뇌의무도」), 「三角山」을 전통적인것이 다.

少女의봄
金德在

봄은 少女의 봄입니다.
少女는 옛꿈이 어리인 푸른 하늘을 처다보며 치마폭에다 野光의 女神을 담뿍 안고 노래합니다.

◇

봄은 보랏빛입니다.
少女는 그우를 어루만지며 폭싹, 봄빨리 향기롭게 피어지리.

봄은 少女의 새빠란 눈시몽자로 탐스럽 기어들니다.

◇

少女의 옷깃에 앉어 어데론지 날려버렷습니다.
그의 가벼운 人생에 날려버렷습니다.

四月

「사꾸라」 꽃가지를 꺾기가 아해가 나무에서 떨어지다.

봄과詩人

방엇 해놓은 들창으로 나비한마리 날려들어와 原稿紙우에서 조으는 詩人의 머리칼에 앉엇다.

詩人은 알고도 모르는체 하다 바루―
詩人인듯이―。

流行歌謠曲에 對하야
―異河潤氏의 論文을읽고서―
【下】　具王三

近日 各識者間에서 此問題에 着眼하고 또 各雜誌 新聞社에서 는 流行歌募集을하며 一方 歌謠曲 紹介로 大端한 努力을 展開한것은 結局 現象이나 이것 亦是 商品的 價値가 無하다면 레코-드會社에서는 積極的으로 後援하여주지 않을 것이다. 利權關係上 役割한 資本主의 打算이 第一問題로 될수 잇는 만치 「作品」에 大衆性이 缺乏하다면 問題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담 水準을 低下하더라도 大衆이 適合할 健全한 流行歌를 提供하여야될것이다. 그리고 또 流行歌謠는 相當히 內容이 가지것이 잇다하더라도 그에 附隨한 曲問題가 아직남아 잇는데 이것은 歷史的不利로 아직 健全하고 有能한 作曲家의 出現이 없는 原因으로 今日과같은 現象을 招來한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의 心臟을 울려줄 作曲家가 出現하야 健全한 流行曲을 製作함 밧게 더없을 것이다.

또 一文中 「作曲한바 매고드 라 洋式樂譜에 싯되 그 노래의 伴奏를 朝鮮의 特有한 樂器를 利用하야 부른것이다 또 그다음 朝鮮樂器만으로는 「或은西洋樂器와 朝鮮樂器의 合奏等……」이얼마나 우스운 말인가. 요사이 數三의 레코-드會社에서 一時의 販賣計를 朝鮮古歌謠의 洋樂伴奏를 붙히고잇는 朝鮮古歌謠의 伴奏로 또流行歌에 朝鮮樂器의 伴奏를 用하는것을 보고 異氏가 提議하느지 모르겟으나 이것은 玄琴獨奏만해보아도 알것이다. 시도 벌서 十年前에 가까운 옛날 이같은 過去期에 한現象으로 調和運動을 試驗해 본 結果 失敗에 돌아간 事實과 또 三年前까지도 上野音樂學校에서 「雅樂」 作品을 發表하후 一般社會로부터 얼마만한 反駁과 反對를 받은것은 우리가 잘아는바이다. 이같은 事實은 如何를 不問하고 原則上으로 絶對不可한것이다.

西洋樂과 朝鮮樂의 調和運動을 한다고하야 陽山道에 四部合唱曲 이 出現하고 방아타령에 피아노의 和聲的 伴奏를붙혀 演奏하고 在來 朝鮮樂이 오케스트라로組織 되고 二八靑春에 콘테리가出現 되고 一見하여서는 이것이 수 게되고 後兩樂調和의 새로운 試驗에 相富한 意見이라고 異氏는 觀測하 는지모르겟으나 이것은 根本的으 로 不可能한일이며 無意味한 作亂에지나지못한다. 元來 거문고 와 伽倻琴에 對하여 編成된曲을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로 演奏하며 는것도 不可하지만 演奏한대도 이것은 非合理的이다. 또 反對로 西洋音樂作曲形式을 우리들의 樂器로써 演奏한다더래도 이亦是 結果이다. 그理由는 樂器自體 의 「表現力」이 不足한 關係上 作曲形式만 模倣한다더래도 根本樂器를 洋樂器와같이 改良하지않는 限에서는 絶對不可能한일이다

그것은 에너루기―와 熱情에잇서 朝鮮古歌謠曲은 西洋音樂의 記譜法으로는 到底히 表現할수가 없다. 그가르고 갖고 잇는 「음조」 가 음계의 이상하게 또 있는 表現된 變化와 樂譜에 依하야 朝鮮의 樂曲은 그대로의 變化에 依하야서는 五線記譜法에 依하야 그러면 朝鮮의 特有한 要素가 女性的이며 一方 悲哀的 이 不足하다. 이것은 旋律進行에 特性이 가지고 있는 어찌 하든가 記譜를 하든가 그 音響으로 반복하는 뿐이 이나 鮮古歌謠에 洋樂伴奏가 異氏의 惑或은 樂器의 合奏그것도 亦是 怪物이 자타지 않는가 한다. 萬若 異氏가 이兩樂의 調和運動에 무슨 새로운 理論的 開拓이 잇다면 大端히 좋은 提案이 며 이것은 一大新機軸이 될 것이다. 朝鮮에서 流行歌의 典形律로 가 時代的 리듬問題에 對하야 過去의 歷史的 批判하야 現實的 人의 리듬이 어떤 것인지 다가지 研究하면 現代 的 라는 問題中에서 健全한 流行歌曲을 製作할것이나 그것이 朝鮮의 流行歌의 民族的의 體系를 세울 것이다. (끝)

라디오
今日프로　木曜日　JODK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料理法、日用品時勢、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今日프로그램發表 ▼午後零時五分 南道雜歌 (一)六字배이와 자진六字배이 (二)興打鈴 (三)개고리打鈴　林明月　朴小香
▼三時四十分 뉴스
▼三時 家庭講座 (三)　家庭教育과兒童劇　洪海星
▼四時 뉴스、職業紹介事項
▼六時 하―모니카獨奏 (一)沙漠을지나가는隊商(二)아舍에대장간…미카엘스作曲(三)위―털루―의戰爭…안티―스作曲(四)황가리안댄스…브람스作曲(五)추억이는舍…코스트作曲(六)放浪者의노래…프라이曲　作曲　李和香
▼六時二十五分 라디오學校 少年과힘 (三)　李亨雨
▼七時 뉴스、天氣豫報
▼七時三十分 新聞漫談 (四)　朝鮮中央日報　朴八陽
▼八時〇分 俗謠 (一)愁心歌와 역금 (二)九明歌李眞鳳 (三)양산도와 방아타령 (五)맷돌이, 平壤가리 방아타령　金玉葉

第一放送

▼九時三十分 (東)時報、뉴스、氣象通報、帝日프로 그램 發表
▲午前六時三十分(東)琵琶獨奏講座(二)▲七時(東)ラヂオ體操▲午後零時五分三曲合奏と民八獨奏▲二時家庭講座(副作旋律の話▲六時(東)童謠劇 箱られる(JOAK)唱歌隊)▲六時二十分(東)コドモの新聞▲六時二十五分(東)英語講座(二)▲七時三十分(大)講演▲八時(東)鄕土舞踊と民謠(一)祭囃はやし(茨城縣鹿島郡高松村 中野村有志)(二)日太鼓をとり六調子十六日唄(熊本縣 球磨郡 人吉町有志)(三)船唄(北海道檜山郡 江差町有志)(四)磯節オハラぶし、ハンヤぶし、ジョンガラぶし(鹿兒島縣日置郡田布施村有志)(五) 風流八幡

▼八時三〇分 바이올린獨奏 바이올린協奏曲作品二六…브룩 흐作曲 第一樂章아레그로·모데라―토 第二樂章 아다지오 第三樂章아레그로·에네르지코　安炳昭
▼九時 連續古談 八壯士(一)　吳秋園

明日프로

▲午前十一時五分氣象通報、料理法、日用品時勢▲正午時報、今日프로그램發表▲午後零時五分俗謠(歌舞歌李茶玉)▲零時四十分뉴스▲二時 婦人講座 現代女流探險家(一)▲今九時▲四時뉴스、職業紹介事項▲六時 童謠와口노래獨奏(鍾明歌謠團)▲六時二十五分라디오學校 少年과힘(四)李亨雨▲七時뉴스▲天氣豫報▲七時三十分講演說 明에 對하야(陸軍中將衆傑)▲八時明鼓 八壯士(二)(吳秋園)▲九時連續古談 八壯士(二)(吳秋園)▲九時三十分(東)時報、뉴스、氣象通報 帝日프로그램發表

ンヤ節(鹿兒島縣八女郡星野村有志)(六)稗搗節などり(宮崎縣東臼杵郡椎葉村有志)(七)讚岐浦部縣東臼杵郡田植唄及打唄八木ぶし(群馬縣佐波郡 玉村町有志)▲八時四十分(大)義太夫 藝太平記山伏 (和尚の段)

雜誌「新家庭」兒童文藝懸賞募集

유성기 유성기 하면「레코-드」는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레코-드는 미숙하여 생각하여 보시면 소용되는 것이 아니오 그런데 이때를 위하여 「신가정」에서는 지정한 의미로 아동작품이 발표하여 보자는 것이외다 유사한 가정사회 레코-드회사에서 「세계어린이날에」(지난 五월의 가 정안) 규정아래 아동작품을 선 정하여 그럴생각으로 「신가정」 七 월호에 발표하고 레코-드회사에서 취입하야 어린이가정에 보급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음 「신가정」에 발표될 이번게획에 대하야 그 규정은 아래와 같이 당선된 것은 레코-드에 취입할 만큼 드의 정화에 이 바라다고 합니다.

規定一束

一、자장가　一篇　賞金二十圓
一、童謠　三篇　賞金每篇十圓
一、童話　三篇　賞金每篇十圓
(二百字原稿紙十枚)
一、新家庭風景二篇　賞金每篇二十圓
(二百字原稿紙十二枚)
一、期限　四月十五日到着
一、送處　京城光化門通一三九新東亞社　新家庭部
(賞金總計百五十圓이며 그中三十圓은佳作에 지당히 배급함)

무지개
張赫宙 作　李象範 畫　(188)

악(惡) 三

「여보서요 네―」
제일먼저 남철이를 반기안여자는 남철이의 모양을 알고 이미없이 이러게 아양을 부리엇다.
「그동안 안녕하셧서요」
「남철이 무슨일이 업스신지 예는 남철이의 무릅에 올려놧엇다.
「머 좀 사주서요」
또한 여자는 남철이의 팔을 하나 감아쥐엇다 무릅에 올려 앉혀 한손을 붓을었다.
남철이는 감박을 당고 보의에 술잔을 따랏다.
그것가엇다. 그는 가가 찻다. 남어지 五六인되는 여자들은 다지에 무리앉어서 남철이를 옷거보는것이엇다.
남철이는 이런경영이 전혀없어 다. 무어라고 해야 어울릴것을 나하나 그닥 난처한것이 업섯다.
「그대루는 더욱. 서우―도로 뵈엇다」
「아이구 시장해 저녁좀 사주서요」
남철이 무릅에 앉은 뚱뚱보가 말하엿다.
남철이는 아직 다른 술이 없음을 알고 요리를 하엿다.
「술 가져와요」
「여보 술하구 안주 좀」
뚱뚱보가 조사자리로 다정히 말 하엿다.
「애」
「아이구 너희들은 여기서 아무여 주나」
「지이 사주서요。예。」
「예 그럼 점심먹어야 된데」
뚱뚱보가 여자가 천천히 대답 하엿다.
「용」
남철이가 생각하고 잇는동안에 「그럼은 「난카레―」 「갑 카즈허구 라이스」이러케 제각기 먹을 것을 시키고.
「멀 잡수세요」
하고 남철이에게 물엇다.
남철이는 그들의 무례함을 나무래용기가 나질 않엇다.
「아무거나 갓다 주시우」
그는 여러여자들을 자세히 바라보며 말하엿다. 하나도 인간다운것은 없엇다. 그는 하나고 가 누구인가 하고 물으려하엿으나 좀더 기회를 보려고 꾹 참고잇엇다.
그의앞에는 여나무 그릇되는 저녁이 주문되엇다. 계집들은 주리 이렇게 각각하고 먹엇다. 어지간이 시장한 모양이엇다.
그런가운데 술이 두셋때 들어 왓다. 남철이 앞에는 계집애들이 죽어젓다.
「술 가져와요」
뚱뚱보가 여자가 말햇다.
「옹」
남철이가 분명치 않게 대답하엿스나.
「양주(洋酒)를 가져와요」
하고, 여자는 일어섯다.
「일본술이 좋지」
남철이는 가져온 술을 조금씩 미엇스나, 조금씩 취하는듯이엇 다.
「궁장으서 온여자는 없나」
그는 기회를 엿보아 물엇다.
「웃종 오―라 그 하나고가 경상도 지오」
「어디 잇나」
「얼고 누엇서요」
「예」
「그런일이 잇서서요」
여자는 비밀이나 잇는듯이 말 하엿다.
「야―잉 하나고와도―시다(야 하나고 어떻게 낫다.」
그때 술취한 사나이가 소리를 질르며 들어왓다 그것은 조선사

科學데이(四月十九日)를 意義잇게

一、科學講演會 (入場=無料=先着五百名限)
日時　四月十九日午後七時半
場所　鍾路中央基督敎靑年會舘

演題及演士
科學의 槪念　李晶燮
産業과 發明　李釆鎬
化學工業의 最近傾向　安東赫

二、科學普及座談會 (斯界權威及有志人士出席)
日時　四月二十日午後五時
場所　市內貫鐵洞百合園
(招待券持參人士에限함)

主催　科學데이實行會
後援　東亞日報社學藝部

淋病藥 選定問題

誤會는 永久히 眞價를 덮지 못한다 我商會가 三十年前에 淋疾藥을 創製하야 發賣를 開始하자

좋은고로 듣고 듣는고로 팔리어

不過二個年間에 內地、朝鮮、滿洲、支那等의 販路를 擴張하야 非常한 發展을 하엿다
그리하야 我商會의 發展을 부러워하야 雨後의 竹筍같이 淋疾藥이 簇出하야 낫다가는 없어지고 없어졋다는 나고하야 藥藝無窮한 狀態이다.
世上은 새것이라면 좋아하는 것이 通弊이라 新聞、雜誌、 와 廣告에 依하야 ……

我商會는 斯道의 … 좋은 고로 듣고 듣는고로 ……

아모라도 할수잇는 淋病의 小便檢査
藥의 有効無効는 小便의 檢査로안다

淋病患者는 여러가지 藥을 먹어도 效가없어 난 이렇다 …… 第一 注意할것은 小便의 檢査다. 藥을 먹고 小便을 取하야 보면 …… 그것이 淋菌이 라는 것이다.

小便은 檢査해 보아서 淋菌이 잇고 없는것을 알수잇다. 그러나 ……

りん病 はい毒

횡현과 감창은 재지 않고서

梅毒은 내버려두면、一身을 亡할 뿐아니라、子孫에까지 遺傳하여 一家를 破滅하게 되는 무서운 病이다.
有田도락구의 梅毒藥은 過去二十年間 梅毒專門藥으로 …… 目的을 達하라.

위조품이 많다는 사기꾼 잇수 有田藥房의 商標를 사십시요

本舖 大阪內本町 有田音松
發賣元 東京日本橋 大阪心齋橋
有田도락구

有田音松製劑責任販賣는 他藥店에 販賣를 不許함
◉朝鮮 ◉山口 ◉大阪 ◉東京 ◉福岡 ◉滿洲

ClibPDF - www.fastio.com

產業

金銀의常識 ― 採掘及分配方法 (一)

久遠의黃金! 黃金! 黃金의魔力과 [illegible]

(계속)

法律顧問

契約以上의 小作料를받아가

問 乙이 甲의 土地二斗落을 小作하는바 凶年을 勿論하고 每年 [illegible]

어느사람에게 받어야할가요

[illegible]

勞農露西亞의 數字的全貌 ― 第二次五個年計劃成果

△農村經濟의機械化

第二次五個年計劃下의 農村經 [illegible]

一九三二年	[illegible]
一九三三年	[illegible]
一九三四年	[illegible]
一九三五年	[illegible]
一九三六年	[illegible]
一九三七年	[illegible]

으로 第一次五個年計劃末年度의 能力을 比較하면 그增加率은三六八、五%이다。[illegible]

△農村經濟의農具廠

[illegible] 農村經濟機械化의進展狀態는 左記數字에依하야 一目瞭然하게되얏다。(單位千臺)

콘바잉	[illegible]	[illegible]
脫穀機	[illegible]	[illegible]
貨物自動車	[illegible]	[illegible]
自動車	[illegible]	[illegible]
動力裝置(키로왓트)	[illegible]	[illegible]

△家畜의總數

第二次五個年計劃下의 家畜頭數及第一次五個年計劃末年度 比較는左와如하다。(單位百萬頭)

	一九三三年	一九三二年	比率
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羊·山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戰前까지의現數를 比較하면 (單位百萬頭)

馬	三五、一	三三、五
牛	五八、九	七〇、五
羊·山羊	一一五、二	一四六、七
豚	二〇、三	二五、九

前記兩表를 比較하면 革命戰前 [illegible]

小麥五年計劃 第二年度實收豫想 八百五十萬石假量

[illegible] 政府의小麥增殖五個年計劃의 第二年度인 今年의 小麥收穫豫想은 來六月一日 農林省에서 第一回豫想發表를 할터인데 [illegible]

新發賣

毛髮을美化하는純植物性

メヌマポマード (메 누 마 포 마 — 도)

卅五錢의 新小瓶! 果然好評

旅行에 오피ㅣ스에……

사기좋고쓰기좋은瀟洒한 新小瓶! 이말숙한メヌマ의品格에 貴下의더할수없는整髮美를表現하시라

ポマード로서의 純粹度의 높음! 毛髮에對한 浸潤性의 速함! 洗髮時에 깨끗이 빠짐! 絶對값것은 品質높은 メヌマ에게만 볼수잇는 冠詞!

メヌマ는適度의粘性과 때리게ㅣ한香氣와를자랑하는ポマード 입니다 メヌマ는비듬을막고毛髮을고치며털을柔하게하야健康的 潤澤을줍니다 그리고그感觸의爽快함은メヌマ獨自의것입니다 그리하야メヌマ는新人의愛用이가장盛합니다

MENUMA POMADE 高等美髮料 メヌマポマード 井田京榮堂 東京

東京 大阪 井田京榮堂

放學以外의日曜利用 文盲退治에積極活動

전라도 각보교 교원을 총동원 今月末엔七千人受講

【전주】 전북도에는 누만의 八할이상이 문자를 해독하지못하는 수자를 보여 주고잇다 현하 공립보통학교 백六十교에 취학아동이 약三만五천인으로 계산하여도 학령아동 二十二만인에 비하야 겨우 一할五분밖에 아되는 취학률로 기타 사립학교, 강습소, 서당등 아동을취하여도 취학아동은 二할에불과하리라는데 농촌에서는 작년부터 철저적으로 문맹퇴치운동을 하고저 보교의 하기, 동기휴가를 이용하야 보교교원六백여명을 총동원시켜 좌기와같은 우성적을 내엇다하거니와 금년四월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운동을 장전시키고저 종기의 휴가이외에도 또다시 일요일을 이용하야 회치강습에 전력을경주하리라는데 우선 제一착으로 금제(金堤)군에서 일요학교를 개설하고 열심교수중 지사 각군에서도 생석 개설하리라 한다. 그래 금월말경에는 지어도 一백三十四개소의 강습회가 一제히 개설되어 약 七천인의 청소년이 수강하게되리라고 한다.

昭和八年夏季、冬季講習状況

	講習會數	講習員數 男	女	計	敎員數
夏季	二〇四	五、八八三	八二三	六、七〇六	三五〇
冬季	一八二	五、二五九	一、二九二	六、五五一	三八〇
九年度現在實施状況					
同	一三四	五、三四一	一、五一五	六、八五六	四三八

醉中에燒死

【남해】 경남남해군남면(慶南南海郡南面) 향림동(鄕林洞) 이효영(李孝英)은 지난八일 오후十一시경에 술이취하야 자기집으로 왓는데 담배불이 요와이불에붙어 타죽엇다는데 실중에연기를 마시여 소리도 못내고죽엇다한다.

五百町步燒失 損害三千餘圓

◇하마트면 부락산에 연소 軍威郡ト山火後聞

【군위】 지난八일 오후八시경에 경북군위군 부계면 매곡동(軍威郡缶溪面梅谷洞)부근 산에서 발화되어 그날 오전부터 불어오든 풍세가 더욱맹렬하여지 일시는 것잡을수없이 산림 五백여정보를 소실하엿다 한다. 소관부계주재소원과 동면 직원들이 총출동하야 동면 대율동(大栗洞)소방조원을 총동원시키 진화에 맹력하는한편 군과 경찰서의 응원을 구하고 동면창평동(昌平洞)소방조원의 응원과 부근동리의 동민들을 동원하야 一천二백여명의 맹활동으로 九일오전十시경에 겨우진화되엇다는바 가장 다행한것은 동면 명산동(明山洞)은 전후사우산에 화세가 충천하야 동민들은 一시는 생사를 헤매고 대소동을 이루엇으나 인근 칠곡군 가산면 용수동(龍水洞)소방조원들이 출동하야 진화하엿다 하며 군과 경찰서에서는 자동차를타고 九일오후二시경에 현장을 조사하고 갓다는데 손해는 三천원에달한다고하며 원인은 방금 조사중이라 한다.

大邱市民이 運動競技會

금년은 공설운동장에서 來二十七日에開催

【대구】 十一만대구시민에 화목의 정서를주며 친목을 더욱 두텁게 하는 제八회 대구시민 대운동회는 왕례에 의하야 오는二十七일에 개최하기로 되엇다 한다. 작년까지 달성공원(達城公園)에서 개최하든 동대회는 여러가지 불편한 관계로 명년부터 설비되는 종합(綜合)운동장이 되기까지 동운정(東雲町)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되엇다 한다. 이리하야 동대회의 준비는 착착 진행중이라는데 경기시장은 공설운동장의 파개상 애남다 하야 오는十四일부터 二十三일까지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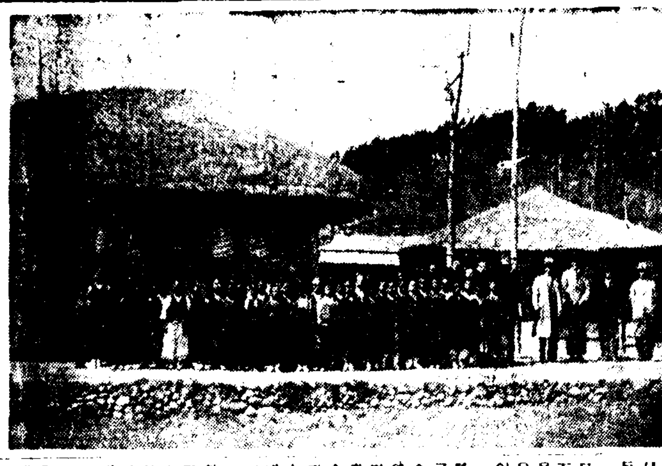
美女史表彰式

【당진】 충남당진군 부곡면 사창리(沙倉里) 권용선의 처 강씨(姜氏)는 자기의 시부 권기수(權奇洙)라는 나이 九十一세되는 노인의 기나긴 평생을 지성으로 시봉하여 오던바 이사실을 들은 당시 유지이사 신영모(辛泳模)외 제씨의 발기로 지난二十一일 선행자 강녀사에 대한 표창식을 성대히 거행하엿다 한다.

鐵道交叉點 高架線敷設

부산부시요망

【부산】 부산부범일정(凡一町) 부산진 공설시장에 잇는 통행다대가와 철도와의 교차점이 통행상 위험한데 부산부의 행정구역상황 인구증가로 앞으로 교통이 복잡해질것을 예상하고 철도를 고가선으로 부설하야 교통위험의 방지를하고저 부산부회에서 철도국에 고가선부설을 하여달라고 의사를 제출키로 결정하엿는데 부회에서는 자난十일경식으로 고가선가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철도국장에게 발송하엿다고 한다.



◇…全州日曜學校職員生徒一同…◇

十七年獻身한敎育者 虛無"過失"로解職

이사회의 부당한 처사로인해 鎭南浦得信校不祥事

【진남포】 청춘시절 十七년 동안을 오로지 우리 자녀교육만을 위하여 몸을 바치고 심혈과 성의를 다하여 온 우리의 교육공로자(敎育功勞者)를 문제도 되지 않는 문제로 부숴가는 죄에 가히 오명을 씌워가지고 해직시켯다는 실로 해괴한 사실이 진남포(鎭南浦)에서 발생하엿다. 사실은 진남포 장로교회(長老敎會)에서 경영하는 사립득신학교(私立得信學校)에서 발생하엿는데 내용을 듣건대 동교교장 김순전(金順銓)씨는 동교교원으로 二十五년간속, 전후 十七년간을 두고 육영사업에 지성진력하야 우리 교육계에 막대한 공헌이 잇어 동교학부형은 물론이오 동지의 일반인사로부터의 경의와 찬사를 一신에 집중하고 잇든터인데 금년 동교여자고등과에서 평양 숭의여학교(崇義女學校)에 四명을 지원하는 학생중에서 四명을 선발하야 추천하기로 추천생은 학업성적 순위 제一호인 박창실(朴昌實)을 필두로 제三호 최무숙(崔戊淑) 제十호 전인덕(全仁德) 제十二호 장영배(張英培)등으로 이것을 지난 三월一일에 결정하엿다.

그런데 동교장은 상당히 고려하야 지망생을 얻어보고 또 전기학교 추천생을 결정하기 위하야 제一 학부형회를 지난해 하기부터 수차 개최하엿을 뿐만 아니라 금년 졸업기를 압두고도 지난 一월十五일에 학부형회를 개최하엿는데 그때까지는 상급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겨우 三명뿐으로 전기 최무숙, 전인덕, 장영배이엇다 한다.

그래서 전기 三명을 모두 추천생으로 내정하자 학부형중에 성적이 가장 우량한 박창실이 또한 중학교에 입학을 지원하엿으므로 그도 추천생으로 되엇는데 이사회(理事會)에서는 졸업생수 五분지一을 추천생으로하는 규정인데 어찌하야 十四명밖에 못되는 졸업생수에서 四명을 추천하엿으며 또 학업순위 十호 十一호를 추천하엿느냐하고 그것이 잘못이라고하여 전기 김교장을 피척게 하는 동시에 사직을 권고하엿다고 한다. 김교장은 三명추천할것을 一명 더하여 四명추천하게된 이유와 순 十호, 十一호를 추천하게된 까닭은 그보다 성적좋은 학생으로는 학자관계로 상급학교 지망생(추천생)이 없엇으나 당시까지 이므로 그들을 추천하엿노라고하며 그것은 선의에서 출발한 행사요 결코 아무 악의가 없엇다는것을 극력 변명하엿으나 결국은 이사회의 고집대로 사직이라는 형식으로 면직처분이 되엇다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악화하고 김교장은 뜻밖에 의혹과 허무한 누명을 뒤집어쓰게되엇다는데 사건의 장래가 자못 주목된다고 한다.

學父兄會와 社會有志蹶起

◇十二일에 각기 회합하고 理事會를糾彈할터

부사하고 김교장 사이문제는 일향 보도와같거니와 이에 극도로 분개한 학부형및 一반유지들은 지난十二일밤八시에 학부형은 당지 장로교회당에서 一반유지는 十二일오후三시 당지상춘관(常春館) 요정에서 회합하야 김교장유임운동과 이사회 규탄등을 결정하엿다한다.

「校長에感謝」

◇理事長 金聖鐸氏談

이번 김교장의 사직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종은학교 추천생 문제에 잇지 않습니다. 추천생 선택문제에 잇는 것이 아니고 교장의 노력이 컷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엿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사중에는 사상 김교장을 비난하는 일도 없지 않아서 교장도 심히피로하엿든 모양입니다. 무엇 이사회전체가 사직강요를 하엿다는것은 허전입니다 운운

學校의影響을두려워 辭職한것이오

校長辭職한 金順銓氏談

나의 사직의 이유가 추천생인 수야 없겟지요. 어떠한 그런 문제로 기인되엇다고 전적으로 一부이사간에는 이러니저러니 말성이잇는것 같아서 나는 학교에 끼치는 외평을 두려하야 사직하야 인연깊든 이학교를 나오것입니다.

「積極兼任運動」

◇學父兄 朴啓松氏談

一七년간이나 영육에 헌신하엿을뿐만아니라 득신학교가 오늘날이만큼의 발전을 보인것은 전혀 김교장의 노력임에 불구하고 금번과같은 사실로 이사자가 사임을 강요하는것은 실로 어떠인는 말이지는 물으나 배은망덕이 아니랄수없습니다. 추천생 선발 문제같은것은 일직이 학부형에게 양해를구하고 또 학부형도 이롱감사하나 극력지지를 하엿으든데 이것이 이사자 눈에 문제가 되엇다는것은 자기무덤을 자기가 파놓는것이아닌가합니다. 우리 학부형은 十일밤에 회의를 열고 김교장 유임운동에 적극적 활동을 개시하기로 하엿습니다 운운

消息

◇吳致範(利原郡守)新任人事次本報利原支局來訪

◇和田兵馬(利原公普校長)新任人事次 同上

◇金乘柱氏(溫井公普訓導)新任人事次本報古塘分局來訪

◇徐瑞永氏(榮州郡農會地方産業技手)新任人事次 本報榮州支局來訪

◇柳榮馨氏(榮州郡地方森林主事)新任人事次同上

◇石容吉氏(榮州郡森林主事)新任人事次同上

◇李命求氏(成歡公普訓導) 轉任人事次本報汶山支局來訪

◇都山清秀氏(汶山普校訓導) 新任人事次 同上

◇權元治氏(平北視學) 新任人事次 本報新義州支局來訪

本報讀者慰安巡廻野談大會

演士 尹白南氏

川内里 四月十三日(金) 高原 四月十四日(土) 永興 四月十六日(月) 鎭興 四月十九日(木) 咸興 四月十八日(水) 興南 四月二十日(金) 三湖 四月廿一日(土) 洪原 四月廿三日(月) 城津 四月廿四日(火) 漁朱 四月廿五日(水) 漁大津 四月廿七日(金) 南陽 四月廿八日(土) 間島

第九回 馬山市民大運動會

◇日時 四月二十二日(日曜)

◇場所 俱樂部運動場

◇主催 馬山市民運動會準備會

◇後援 東亞、朝鮮、中央三支局

京城見學團員募集 (男子班)

◇日時 四月二十一日午前八時江華發 四月二十三日午後五時京城發

◇會費 一金四圓九十錢也 (往復旅費一切) 四月二十日까지會費金額添付申請하시요

◇見學地 市内著名建物、放送局、新聞社、昌慶苑의夜櫻、動物園、紡績工場等

主催 東亞日報江華支局

婦人見學團募集

◇時日 四月十六日午前八時半

◇集合場所 淸州第二公普校

◇申請 會費二十錢을 添付하야 十三日까지 (中食提供)

◇見學場所 郡廳、道廳、會社、製絲工場、麵子組合、各銀行、各學校、組合工場、郵便局、刑務所、道廳

主催 東亞日報社淸州支局

海岸視察團募集

◇時日 自四月十四、十五兩日間

◇場所 鎭海、統營、麗水、馬山

◇募集人員 三十名

◇會費 每人當五圓五十錢씩

◇申請期日 四月十三日까지

主催 東亞日報社陝川支局

赤道 (93)

玄憑虛作 李靑田畵

어여쁜희생 【七】

은주는 저와 석호와 정혼하엿다는 사실을 듣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엇다.

「좋은 자리가 따로 잇느냐. 집안사람 같구, 모든일 잇구, 돈든하구, 그만하면 네일평생을 맡겨도 내 생각에 편할줄것 갓다. 더구나 그런 저런 속사정도 알구…」

병일은 은주가 콩마해 하다는이 보란 차라리 부드러움한 기색을 알아보고, 변명비슷하게 연송 석호를 치켜올렷다. 그리고 「속사정도 알구」한 끝엣 말에 힘을 주고 뒷절은 얼버무렷다.

「그야 나이도 많구 김없다구야 못할게지마는, 그러나 어떠하니 여자란 한번 몸을 그르치면 다시 어쩌할 도리가 없는거야. 네 운명에 돌리는게지 어쩌수 잇느냐 봉」

병일은 눈을 그렁그렁한 은주의 눈을 보고, 제법 우애잇는듯한 목소리를 내엇다.

—오빠, 너무 하십니다. 너무 심하십니다—

은주는 속으로 부르짖고 자리를 차고 이러낫다. 그는 참아 더 듣고 잇을수 없엇든 것이다. 도 병관이 무양으로 사랑을 빠저나와 제 방으로 뛰어와 왓섯다.

그는 참으로 귀를 씻고 싶엇다. 저만한 아달 딸이 잇는 석호, 새사머리 없이 알미운 석호, 목어다강이 같은 얼굴에 깜자스러운 자은 눈이 깜박거리는 석호! 그와 저와 정혼을 하엿다는 것은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소리엿다. 입에 못 담을 소리엿다.

생을 생을 눈물을 지는 석호가 눈앞에 선연히 나타낫다. 뼈압파 같이 나근나근하게 제 몸에 휘감긴듯 하야 은주는 몸서리를 쳣다. 여태를 사나운 범이라면 석호는 징글 징글한 독사에 불과하이 없엇다. 범의 아가리에 들엇던 사기를 그 범에게 도루 던저 주자 하더니, 이번에는 독사에게 내버리려 한다.

—어찌면 오빠의 마음이 그렇가. 언제는 그눈물을 정혈을 살린다구 떠들더니 또 다시 혼인을 하려 들고, 인제 와서는 다시 석호와 정혼을 하엿다니—

은주는 생각할수록 오빠가 애수하엿다. 하든 갈이 믿엇든 제 오빠가, 이러케 벌벅스럽고 주책이 없고 인정머리가 없을 줄이야. 남은 배와 살을 나누엇거든 예연한 생각도 없는가, 가엽슨 생각도 없는가……

제 오빠의 사랑까지 변경인 줄이야, 거짓이엇는것인줄 좀이야!

은주는 너무 씁쓸하엿다. 너무 호젓하엿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휑 비인듯한 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엇다.

이렛거나 저렛거나 죽으면 고만이엇다. 하시 바삐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으로 찾아갈것을구 차이 하루이틀의 목숨이 나마 이어주엇다가 이런 더러운 소리까지 듣게 된것이다.

은주는 제 죽음이 늦은 것을 한하엿다.

그는 속옷도 새것을 갈아 입엇다. 양말도 새것을 갈아신엇다. 교복의 본시는 몇번이나 떨엇다 그마우한 구석구석까지 만져어리며 펏다.

그는 입을 것을 다 입고 참다라케 책상머리에 앉엇다. 제 손때가 묻은 교과서, 잡기장, 참고서를 꺼내 이것저것을 빼여보고 또 보앗다. 안타가운 이별을 아께는듯이.

마지막으로 그는 편지지를펼다. 그는 아무래도 제 오빠에게 유서 한장을 아니 남기고 갈 수는 없엇다.

칼날 같은 면엇다. 지렁이 같은 글자가 꾸불꾸불 하며 충동주엇다. 새 마으지도 않은 잉크우에 눈물방울이 떨어져서 글자가 피여나고 흐려젓다. 그는 몇장을 버리고 몇장을 다시썻다. 그러고 쓰는 어데보이도록책상에 꽂아 주엇다.

거울을 몇번을 다시 보고 눈물 얼룩이를 지웟다.

그는 밤들기를 기다렷다.

—어찌하면 아모 눈에도 뜨이지않구 집을 빠저나갈꾸—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것은 오식 이 걱정 뿐이엇다.

성욕의 제단에 어여쁜 희생은 마지막 길떠날 준비를 다 차리고 만것이다.

값싸고질긴 대극성광목
東亞日報需昌洞購讀請求所
需昌洞一五三番地 德昌商會 【光三四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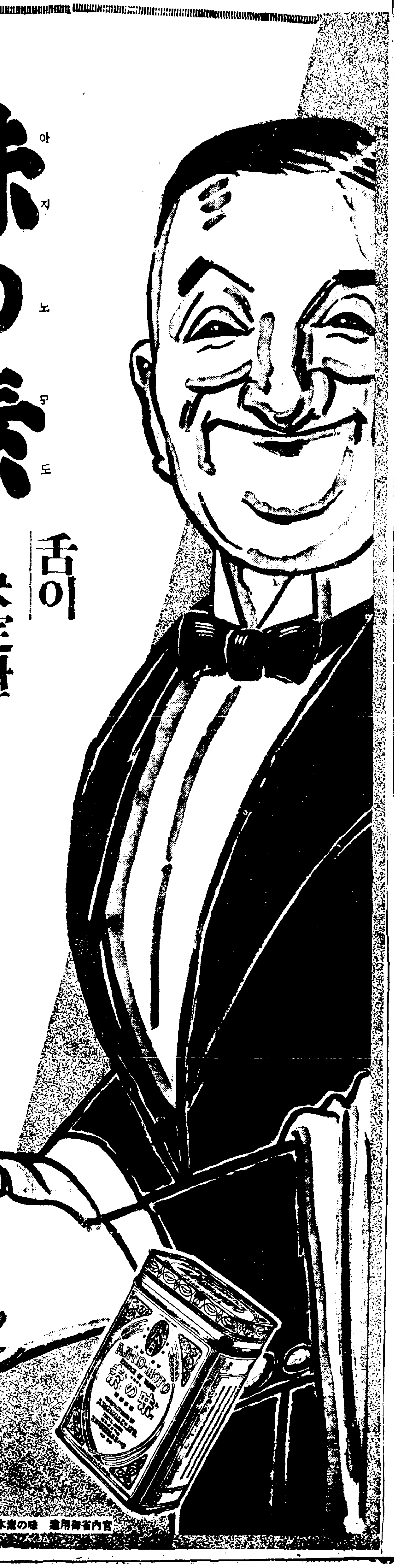
(寶物大) 十四金ペン 高級エボナイト軸 特別元價只の一圓
高級萬年筆 アイロー
新製三重寶傳
大景品附特賣
五千三萬本
要前金
製造元 鈴木合名會社

職業 七內外貿易會社
本社京阪
同胞의生死를등에지고三百里
團成社
아리랑
脫線曲馬王
明暗旅合羽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舌이 決定한 世界一!

美味 국、지짐이、찌개、김치、醬油等 모든料理에使用하야風味는倍加

便利 깍는수고와삶고끄릴시정없이時間이省略되어非常貴重

經濟 効力絶大한故로極히小量이면足하고頗히德用

宮內省御用達　味の素本舗　鈴木商店

4—A

갑싸고질긴 우리의옷감

대극성광목

佐波醫學博士秘法

メウヂン短期療法公開

腦神經衰弱

無料로 五年間의苦惱를이겨내인 나의貴重한體驗을가르처오

別藥을다먹어도아니낫는사람과 조흔藥조흔療法을알아라는사람

記憶力減退健忘症 頭重하고腦가답답한사람

視力減退、性的障害 記憶力이나빠진사람

頭痛眩暈잇는사람 房事不能한사람

萬事에실증나는사람 히스테리ー알는사람

함부로성잘내는사람 밤에잠못자는사람

忘念에煩惱하는사람 젊어지고싶은사람

이러한분께 나의體驗療法

敬神福德會

健康相談部主任

資本金貳百萬圓

株式會社 海東銀行

頭取 金季洙

9—3E

婦人病의苦痛으로부터 健康의歡喜로更生하라면 오직한가지名藥中將湯을勸합니다

全女性의守護神

中將湯

중장탕

主效

津村順天堂

明色美顏白粉

명색미안백분

專賣特許

너무곱게오르는고로……모다놀란다!

明朗! 淸新! 이白粉의近代的인美에는 모다 感嘆하십니다! 게다가時間이 지날수록 化粧이돋뵈이一層고하지는것도 이白粉의 特長입니다!

明色이란것은……?

明色美顏水（水白粉）

明色美顏粉白粉

明色美顏固·煉白粉

明色美顏煉白粉